



특집 \_ 미국 시민권 없는 입양인구제법 하원 통과  
기획 \_ 재외동포포럼, 인구 절벽 시대의 해법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화제 \_ 베이징 동계올림픽, 오심 논란·도핑에 얼룩진 '지구촌 스포츠 큰잔치'





04



06



22

- 04 특집      미국 시민권 없는 입양인구제법 하원 통과  
              상원과 조율 남아... 한인 1만9천명 수혜대상
- 06 기획      재외동포포럼, 인구 절벽 시대의 해법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이민청·재외동포청 설립 제안
- 08 화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오심 논란·도핑에 얼룩진 '지구촌 스포츠 큰잔치'
- 10 한민족 공감      한국·중남미 수교 60주년
- 12 글로벌 코리아      한인 2세 제이슨 박, 미국 버지니아주 부장관 발탁  
                                  한인 보디빌더 석진호, 교통사고 당고 '미스터 뉴질랜드' 등극  
                                  재미동포 사업가 미셸 강, 미국 여자 프로축구 '워싱턴 스피릿' 인수
- 14 문화유산      안동 병산서원, 자연과 어울림이 빼어난 한국 서원 건축의 백미
- 16 유공 동포      '하와이 한국 민간 외교관' 토니 리 관장 별세
- 17 주목! 차세대      한국계 '마스터 소믈리에' 더글러스 김
- 18 동포소식      일본 쓰루하시역 인근 상점 연합 '오사카코리아타운' 출범 외
- 20 동포 캘린더      재독한인총연합회, 취약계층 동포에 '행복상자' 전달 외
- 21 지구촌 통신원      태국 한국문화원서 '한복 패션쇼'... '곱고 아름답게' 빛난 한복
- 22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인사혁신처, 해외 한인 인재 영입 추진 외
- 24 유관단체 소식      한국국제협력단 초청 연수, 과테말라 '인재 산실'로 자리매김 외
- 25 기고문      재외동포 청년들에게 전하는 소소한 글  
                                  김령 홍익대학교 조교수(2011년도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 26 재단공지      제7기 스터디코리아인 해외통신원 모집 외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 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 없는 입양인구제법 하원 통과 상원과 조율 남아... 한인 1만9천명 수혜대상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못한 리아 씨가 2019년 11월 13일 미 워싱턴DC 연방하원 건물에서 열린 입양인시민권법안 통과 촉구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에 입양되기도 시민권이 없어 고통받던 한인 1만9천명을 구제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 김동석)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가결된 '미국경쟁법안'에 입양인의 시민권 획득을 돕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작년 3월 발의한 '입양인시민권법안'이 미국경쟁법안에 합쳐져 하원 관문을 넘은 것이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미국으로 입양되기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구직을 비롯한 일상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많은 입양아를 받아들였으나, 그중 4만9천 여명이 시민권을 얻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 입양인 중 한인이 1만9천명 정도라고 KAGC는 전했다.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잘 몰랐거나 양부모 이혼·파양 등의 곡절을 겪으면서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경쟁법안의 경우 유사한 법안이 작년 6월 상원을 통과한 상태라 상·하원의 조율을 거쳐야 하는데 조율이 무난히 이뤄질 경우 입양인시민권 획득 조항 역시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게 된다.

상·하원의 조율에는 짧게는 1달, 길게는 2~3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입양인시민권법안이 미국경쟁법안의 일환으로 하원을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게 돼 엄청나게 자랑스럽다"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입양인에게 중대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잘못도 없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AGC는 그동안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안 마련에 역점을 뒀었다.

특히 KAGC는 민주·공화당 의원들의 참여로 초당적인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휴스턴 등 미국 각지에서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동참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민주당 소속 스미스 위원장 외에도 공화당 존 커티스 의원 등 60여 명의 하원위원이 법안발의에 동참했다.

송원석 KAGC 사무국장은 "스미스 의원과 커티스 의원의 초당적 헌신과 공동 발의에 나서준 의원들, 각계의 지지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수년에 걸친 이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법안이 하원을 처음으로 통과하는 이정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는 지난 2000년 소아시민권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을 법 제정일(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한 탓에 이미 성인이 된 수많은 입양인은 여전히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못하고 고통받았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소아시민권법 제정 당시 성인이 됐던 해외 출신 입양인에게도 '자동적으로 소급해서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 “두 번 버림받은 미국 한인 입양인 위한 중대 성과”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미국 시민권 없는 한인 입양인 구제법이 미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 “고통 속에 살아가던 입양인들을 위한 중대한 성과”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 Q. 언제부터 미국 내 입양인의 시민권 획득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됐나.

A. 그 전부터 미국 내 입양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활동했고 우리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한인 입양인들이 찾아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두 번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친부모에게도, 양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입양인들의 참혹한 이야기들로 마음의 충격이 컸다.

### Q. 입양인들이 미국에서 시민권 없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불편이 작지 않을 것 같다.

A. 2001년 9·11테러 이전에는 교육을 받거나 생활을 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다 테러를 기점으로 미국에서 신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미국에서 신분증 역할을 하는) 운전면허증부터 갱신이 안 되고 신원이 불분명하니 쫓겨 날지 몰라 입양인들이 나서지 못했다. 특히 (반이민 정책을 편)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들어 신분 문제, 인종 문제가 두드러지고 한국으로 추방되는 사례도 생겼다. 미국이라는 이렇게 큰

사회에서 입양인들이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한인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 Q. 입양인 구제 법안 마련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한 부분은.

A.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을 거의 같은 수로 모아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데 집중했다. 입양인 문제를 자꾸 이민 사안으로 보려는 쪽이 있다. 공화당은 이민에 반대하는 입장인데다 민주당과 사안마다 대립하니 덮어놓고 반대하는 상황이 생겼다. 하지만 의원들을 만나서 입양인 문제는 이민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라는 걸 설명하면 이해하더라. 입양인 문제는 정말로 인권 문제인데 이민이라는 다른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거다. 하원에 발의된 입양인 시민권 법안에 63명이 참여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절반씩이다.

### Q. 그래도 공화당 의원들 설득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A. 공화당 의원들을 접촉하고 설명하기 위해 미국 각지를 찾아가 노력했다.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을 위해 (지역구인) 워싱턴주 시애틀에도 여러 번 갔다. 이번에도 입양인시민권법안이 포함돼 하원을 통과한 미국경쟁법안에 500개 법안의 수정안 포함 신청이 들어왔는데 절반 이상이 탈락했다고 한다. (※입양인시민권법안은 하원에 별도 발의됐다) 지난 2월 4일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경쟁법안에 수정안으로 포함돼 하원에서 가결됐다.)

### Q.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A. 미국경쟁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작년에 상원을 이미 통과한 상태라 이제 상·하원이 두 가지 법안을 가지고 조정에 나선다. 입양인시민권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 쪽에서 수정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큰 변동 없이 상·하원 조율이 끝나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제까지 하원에서 해왔던 것처럼 상원을 돌아다니며 의원들에게 입양인들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발품을 팔아 정치인들이 입양제도로 인해 생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하려고 한다. 한국 정부에도 지난 일이지만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국력이 크게 성장된 만큼 입양에 대해 신중해야 할 것 같다. **창**



1

## 재외동포포럼, 인구 절벽 시대의 해법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이민청 · 재외동포청 설립 제안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봉제)은 지난 1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 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해법을 위한 이민청 · 재외동포청 설립'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인 김태환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이날의 제121차 재외동포포럼에서 "조정과 통합이 가능한 이민정책과 행정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차기 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국 이주인이 감소했고, 노동 인구도

턱없이 부족해졌으며, 체류 외국인과 국적 신청자도 줄어들었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관련 정책 예산은 2010년 3천32억 원에서 2020년 5천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 행정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 수요에 대응하는 적절한 이민행정 조직의 마련과 운영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저출산 등으로 인한 내국인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비춰볼 때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세는 행정조직의 기능과 역할 변화 필요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이민행정은 다수의 행정기관(중앙부처,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립돼 있어 업무 분산과 중복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 통합된 목표를 수립 ·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부처에 분산된 이민행정과 정책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각 부처 이민행정 업무의 유기적인 집행을 위해 통합적인 이민행정 추진 체계, 즉 ‘이민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휘문 성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탈북이주, 노동이주, 결혼이주, 동포 귀환이주 등에 대한 정책을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업간 유사 또는 중복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총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담 기구 형태와 관련, 하나의 행정 기관에 그 권한을 일임하는 독임제(獨任制) 행정기관으로 ‘이민청’ 또는 ‘이민처’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이민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자의 경우는 기구와 재원을 가지고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현재의 금융위원회, 권익위원회 등과 같은 형태를 말한다.

임채완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은 “‘이민청’ 설치의 국민들의 동의와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많은 토론과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민정책의 방향은 한국인과 이주민의 상호 이해와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포용과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는 재외동포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법적 정비”라고 강조했다.

지태용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 회장은 “750만 재외동포의 역이민과 243만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도시 건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13년간 265조원 예산을 지출했으나, 그 효과가 미흡했다”며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함께 사는 정착 도시 건설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 **창**



2

1.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조종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이 인구 절벽시대의 해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3. 재외동포포럼은 1월 2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21차 포럼으로 '인구 절벽 시대의 해법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3

# 베이징 동계올림픽 오심 논란 · 도핑에 얼룩진 ‘지구촌 스포츠 큰잔치’

**지**난 2월 4일 개막해 20일까지 17일간의 열전을 펼친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올림픽이었다.

2020년으로 예정됐던 도쿄 하계올림픽이 1년 늦은 2021년에 개최됐고,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예정된 날짜에 치러졌다. 그러나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대회 개막 직전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오미크론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스키점프 여자부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마리타 크라머(오스트리아)가 개막 직전에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대회에 불참하는 등 선수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 것이 올림픽 출전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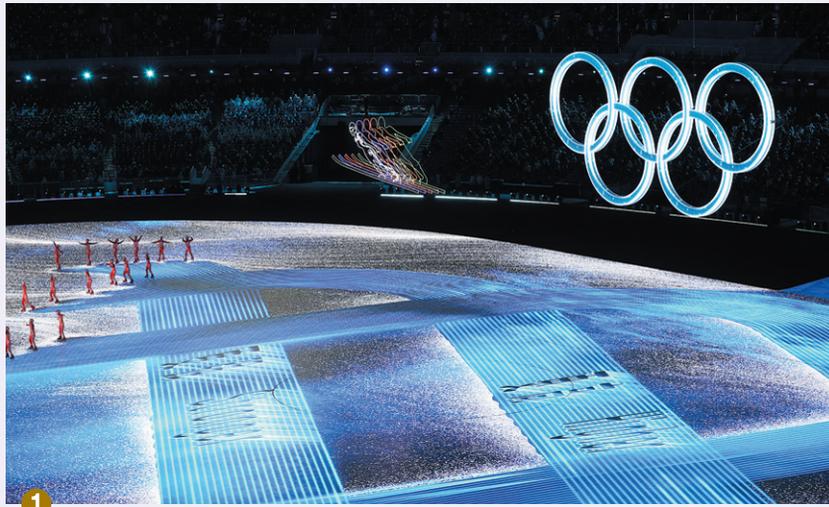
또 대회 개막을 앞두고는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 내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올림픽에 선수단은 파견하되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는 등 ‘지구촌 대축제’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어수선했다.

## 대회 슬로건 ‘함께하는 미래’

‘지구촌 스포츠 큰잔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91개 나라, 2천9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7개 종목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벌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아이티 등 더운 나라에서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에 출전했고, 출전 선수의 여자 선수 비율은 2천892명 중 1천314명(45.4%)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중국 베이징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식은 흔히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인해전술’이나 ‘규모의 힘’과는 거리가 먼 행사였지만 전통적인 중국의 미를 살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전 세계에 위



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됐다. 출연자 수는 2008년 하계올림픽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1만1천600m<sup>2</sup>에 달하는 무대가 HD LED 스크린으로 설치돼 눈과 얼음을 표현했고, 행사 막판 아동들의 공연 때는 어린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바닥의 스크린에 움직이는 효과가 표시되는 인공지능 라이브 모션 캡처 기술이 적용됐다. 또 경기장 지붕과 바닥을 수직으로 연결한 스크린을 통해 폭포를 표현하는 등 LED 스크린으로 다양한 장면을 연출, 극적인 요소를 더했다. 오성홍기 게양 순서에서 중국의 소수 민족 복식을 한 공연자들과 함께 한복을 입은 공연자가 출연해 국내에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반감이 일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여러 별이 뜨고, 또 졌다.

미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에일린 구는 중국의 스포츠 영웅으로 우뚝 섰다. 2019년부터 중국 국가대표로 뛰었던 에일린 구는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빅에어와 하프파이프에서 2관왕에 올랐고, 슬로프스 타일에서 은메달을 걸들었다. 동계올림픽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 종목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 대회에서 3개의 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됐다.

남자 바이애슬론의 요하네스 보에(노르웨이)는 이번 대회에서 4관왕에 오르며 새로운 ‘바이애슬론 황제’로 등극했다. 올림픽에서 4관왕이 탄생한 것은 20년 만의 일이다.

‘스키 여왕’ 미케일라 시프린은 개인전 ‘노메달’에 그쳐 체면을 구겼다.



시프린은 대회전, 회전, 복합에서 실격했고, 슈퍼대회전과 활강에서는 각각 9위와 18위에 머물렀다. 평창 대회에서 남자 스켈레톤 금메달을 따내 아시아인 첫 올림픽 썰매 메달리스트가 된 윤성빈은 이번 대회를 12위로 씩씩하게 마무리했다.

대회 초반 쇼트트랙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중국 선수들에게 유리한 오심 논란이 불거졌다. 또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카밀라 발리에바(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도핑 논란이 큰 충격을 줬다.

메달 종합 순위에서는 노르웨이가 역대 동계올림픽 최다인 15개의 금메달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개최국 중국은 금메달 9개로 3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 출전한 선수들은 개회식과 마찬가지로 중국 영화계의 거장 장 이머우(張藝謀) 감독이 총연출을 맡은 폐막식에서 석별의 정을 나누며 차기 대회 개최지인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2026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함께하는 미래'(Together for a Shared Future)가 슬로건이었고, 4년 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대회는 '서로 다르지만 함께'(Duality, Together)를 주제로 해 '함께'라는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간다.

### 목표 달성했지만 역대 최소 금... 세대교체 속제

한국 선수들은 대회 초반 오심 악재에도 개막 전 목표치를 달성하며 선전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대회 목표로 금메달 1~2개에 메달 순위 15위를 내걸었는데 우리나라는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로 종합 14위에 올랐다.

황대헌과 최민정이 금메달 하나씩 따내는 등 우리나라 쇼트트랙은 이번 대회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를 획득하며 세계 최강의 자리를 재확인했다.

최민정은 쇼트트랙 여자 1,000m에서 은메달을 딴 뒤 서럽게 울어 2018년 같은 종목에서 심석희와 충돌해 넘어진 이후 '고의 충돌' 논란에 대한 마음고생을 짐작하게 했다.

빙속도 마찬가지로,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남자 500m 차민규와 매스스타트 정재원이 은메달, 매스스타트 이승훈과 1,500m 김민석은 동메달을 추

가했다. 또 김보름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에서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역시 2018년 평창 대회 팀 추월에서 불거졌던 '왕따 주향' 논란의 부담을 이겨낸 역주로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피겨스케이팅에선 남자 싱글 차준환이 한국 남자 선수로는 역대 올림픽 최고 순위인 5위를 차지했고, 여자 싱글 유영과 김예림도 각각 6위와 9위를 기록하는 등 남녀부 선수 모두 톱10에 포함되는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메달을 기대했던 설상, 썰매, 컬링 등은 메달권에서 멀어졌다. 이쉽게도 한국은 이번 베이징 대회에서 쇼트트랙 단체인 남녀 계주에 참가한 일부 선수를 빼면 개인 종목에서는 새로운 메달리스트를 단 한 명도 발굴하지 못했다. 한국은 지난 4년간 평창의 영웅을 뛰어넘을 새로운 영웅 발굴에 실패했다.

한편 재미동포 클로이 김(미국)은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다.

클로이 김은 2월 10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의 겐팅 스노우파크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4.00점을 기록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로써 클로이 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의 위업을 이뤘다.

또 우리나라 대구에서 태어나 노르웨이로 입양된 한 네 아이러촌은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과 빅에어에 출전했지만, 메달을 따지는 못했다. 박윤희라는 한국 이름이 있는 그는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저의 첫 올림픽이라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

1.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이 2월 4일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렸다.
2. 태극기를 흔들며 폐회식 입장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3.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메달리스트들.



# 한국 · 중남미 수교 60주년

미래지향적 협력 파트너  
연중 다양한 기념행사 개최



1



2

**올** 해는 한국이 중남미 15개국(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아이티)과 각각 외교관계를 맺은 지 60년 되는 해다. 이 가운데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3개국을 통해 한·중남미 관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본다.

## 117년 인연 멕시코… 잠재력 무궁무진한 동반자

한국과 멕시코의 수교는 1962년 1월이지만, 양국의 인연은 그보다 훨씬 전인 1905년 시작됐다. 당시 1천33명의 한인들이 떠나면 멕시코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인천에서 배에 올랐고 멕시코 곳곳에 뿌리를 내렸다.

서정인 주멕시코 한국대사는 “중남미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인 이들의 후손 3만여 명이 양국 관계의 가교”라며 “이들이 있어 멕시코는 한국에게 더 특별한 국가”라고 말했다.

117년 시작된 인연은 60년 전 양국의 정식 국교 수립으로 이어졌고, 이민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05년 한국과 멕시코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두 나라는 중견국 협의체 미کت(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한국은 멕시코의 4위 교역국(2020년 기준),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다.

지난해 3월엔 멕시코 연방의회가 매년 5월 4일을 ‘한인 이민자의 날’로 제정하기도 했다. 한인 이민자들이 처음 도착한 메리다와 캄페체시, 유카탄주에 이어 연방 상·하원도 한인 이민사를 기리고 나선 것이다.

2020년 부임한 서 대사는 “멕시코는 세계에서 인구 10위, 면적 14위, 경제 규모 16위의 대국으로 세계 최대시장 미국과 이웃해 최근 미중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속에서 니어쇼어링(생산시설 등의 인근지역 배치)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올해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두 나라에서 연중 내내 진행된다. 5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내 첫 아즈텍문명전이 개최되며, 10월 멕시코 세르반티노 축제엔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참여한다. 멕시코시티에 ‘서울의 거리’를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미군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멕시코 노병들도 우리 기업의 초청으로 올해 전쟁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다.



1. 멕시코, 5월 4일 '한국 이민자의 날'로 제정.
2. 멕시코 메리다의 '대한민국로'에 세워진 '그리팅맨'
3. '김치의 날' 행사에서 김치 만드는 법 설명 듣는 아르헨티나인들.
4.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중남미 케이팝 공연대회.

서 대사는 한·멕시코, 더 나아가 한·중남미 관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신남방외교·신북방외교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중남미 재단의 설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멀고도 가까운 아르헨티나... 최적의 윈윈 파트너

남미 아르헨티나는 이웃 우루과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다.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지만 2만 명 넘는 한인들이 살고 있고, 한국의 문화와 음식 등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 정서적 거리는 결코 멀지 않다.

1962년 2월 한국과 공식 수교한 아르헨티나는 한반도의 12배가 넘는 광대하고 비옥한 토지에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진 나라다. 이 비옥한 땅을 찾아 1965년 10월 78명의 한인들이 아르헨티나로 농업이민을 떠났다. 현재 아르헨티나 전역에는 2만3천~2만5천 명기량의 한인들이 살고 있다.

장명수 주아르헨 대사는 “현지 언어 구사가 자유로운 젊은 동포들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활약하면서 현지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이들은 동포사회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는 등 양국 이해 증진과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인들을 사로잡은 한국문화도 양국의 거리를 더욱 좁혀 주고 있다. K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는 물론 한식과 한복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지난해 아르헨티나 연방 상원은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는 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현지에서 김치가 상표권으로 등록돼 우리 정부가 나서 이를 무효화한 해프닝도 한식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장 대사는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한류의 힘을 많이 느끼게 된다. 한글을 배우려는 현지인의 숫자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 K팝과 국악 등을 다채롭게 소개해 ‘한국문화 붐’을 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자원개발 잠재력은 이미 국내 기업들의 주목을 받았다. 2018년 아르헨티나 영호를 인수한 포스코는 올해 연간 2만 5천 규모의 리튬 생산공장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 대사는 “그간 양국 경제관계가 상품 교역 위주였다면 이젠 합작투자를 통한 자원개발과 미래에너지개발 등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피로 맺은 우정 콜롬비아... ‘한국 프리미엄’ 큰 나라

남미 콜롬비아를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중남미 유일의 6·25 참전국이라는 사실이다. 6·25 당시 연인원 5천314명의 콜롬비아 군인들이 먼 한반도에서 자유를 위해 싸웠고, 이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혈맹’ 콜롬비아와는 휴전협정 9년 후인 1962년 3월 정식 수교했다. 2011년엔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2016년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추종연 주콜롬비아 대사는 “콜롬비아의 참전은 양국관계를 확고하게 뒷받침해주는 귀한 외교적 자산”이라며 “우리 정부와 국민의 지속적인 감사 표시와 보은 사업의 결과, 콜롬비아인들은 한국의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에 고마워하고 참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에선 다양한 기념행사가 준비 중이다. 4월 보고타국제도서전, 6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한국과 콜롬비아가 각각 주빈국으로 참여하며, 9월 보고타 황금박물관에서 한국문화특별전시도 마련될 예정이다. **[장]**



## 한인 2세 제이슨 박, 미국 버지니아주 부장관 발탁 “군인·재향군인·참전용사 위해 봉사하게 돼 영광”

‘아프가니스탄의 영웅’으로 불리는 한인 2세 상이군인이 미국 버지니아주의 최고위직에 올랐다.

버지니아주 정부 홈페이지와 미주한국일보에 따르면 글렌 영킨 신임 버지니아 주지사는 1월 14일(현지시간) 새 내각을 발표하면서 한인 2세 제이슨 박(박재선·32) 씨를 보훈 및 병무부 부장관(Deputy Secretary)에 임명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버지니아주 보건복지부 부장관에 오른 한인 2세 여성 제니퍼 이 씨에 이어 두 번째로 버지니아주 최고위직에 발탁됐다.

박 부장관은 버지니아주 출신으로, 페어팩스 고교를 거쳐 미국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다.

2012년 육군 보병 2사단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고, 걸어서 순찰 근무를 하던 중 탈레반이 설치한 급조폭발물(IED)이 터지면서 두 다리와 손가락 2개를 잃었다.

당시 그는 자신보다 소대원들을 먼저 피신시키는 의로운 행동을 보여 연방 정부가 수여하는 상이군인 훈장인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다.

군 제대 후 보잉사의 워싱턴 지사에서 근무했고, ‘아프가니스탄의 영웅’으로 불리면서 미국 전역의 기업체와 대학 등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영킨 주지사는 박 부장관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게 됐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해 이번에 부장관으로 발탁했다고 한다.

박 부장관은 “현역 군인과 재향군인, 참전용사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주 정부가 이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거주하는 박영태 예비역 대령과 성악가 박영애 씨의 장남이다. 부친도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2008년 말레이시아 미 대사관에서 국방무관으로 근무했다. 한국에서도 주한미군 2사단과 한미연합사 소속으로 7년을 복무했다.

## 한인 보디빌더 석진호, 교통사고 딛고 ‘미스터 뉴질랜드’ 등극 ‘클래식 피지크’ 부문서 아시아인 첫 우승

교통사고로 큰 시련이 닥쳤지만, 이를 이겨내고 재활에 성공해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미스터 뉴질랜드’에 등극한 한인 보디빌더 석진호(조나단 석·39) 씨는 오는 12월 1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미스터 올림피아 세계대회’ 출전을 목표로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석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 있는 로우 핫트 이벤트센터에서 열린 ‘2021년 미스터 뉴질랜드 대회-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 참가해 우승컵을 높이 들어 올렸다. 한인으로는 물론 아시아인으로서 처음 있는 일이다.

11살 때인 1994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부모와 함께 이민한 그는 대학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했다. 2004년 우연한 기회에 보디빌딩을 알게 됐다. 옆집에 이사한 아저씨가 세계



적인 보디빌더였던 현 뉴질랜드 국제보디빌딩연맹(NZIFBB) 심판위원장이었다.

그는 석 씨에게 보디빌딩 선수로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운동할 것을 권유했다. 그때부터 보디빌딩의 매력에 빠졌고 책 등을 통해 배우나갔다.

그는 공항 검색요원으로 일하면서 훈련했다. 그러다 3년 전 교통사고로 보디빌더의 꿈을 접어야 하는 시련에 직면했다. 무릎인대 파열, 이두 파열, 발목 골절로 선수 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힘들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심한 우울증으로 눈물의 나날을 보내던 그는 재활을 하면서 다시 보디빌더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찾아가다. 보디빌딩 심판으로 활동하면서 큰 위안을 받기도 했다.

“2년의 재활 끝에 다시 복귀했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았죠. 그간의 공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실내시설 봉쇄까지 겹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포기란 없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미스터 뉴질랜드 대회’ 준비를 했습니다.”



## 재미동포 미셸 강, 미국 여자 프로축구 ‘워싱턴 스피릿’ 인수 헬스기업 ‘코그노산트’ 대표, 420억원대 인수해 구단주 올라

재미동포 여성 사업가가 미국 여자 프로축구 명문 팀을 인수해 구단주가 됐다.

미주한국일보, 워싱턴포스트와 CBS 스포츠 인터넷판에 따르면 공공부문 헬스케어 건설 기업체인 코그노산트(Cognosante LLC)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미셸 강 대표는 워싱턴DC의 내셔널여자축구리그(NWSL) 명문 팀인 ‘워싱턴 스피릿’ (Washington Spirit) 구단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구단주가 됐다.

강 대표는 2020년부터 빌 린치, 스티브 볼드윈과 함께 이 구단을 공동으로 소유해왔다. 지분 인수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강 대표는 지난해 12월 구단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3천 500만 달러(약 418억원)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주가 된 강 대표는 “우리의 재능 있고 강인한 선수와 스태프들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구단 운영과 인프라를 포함해 ‘워싱턴 스피릿’의 복지를 위해 재정을 투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워싱턴DC 여자 축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 스피릿’은 2021시즌 정규 리그에서 3위를 차지한 뒤 플레이오프에서 ‘시카고 레드스타츠’를 꺾고 구단 창립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에 올랐다. 이후 선수들은 “강 대표에게 팀을 매각해야 한다.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은 미셸”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는 등 그를 지지했다.

1981년 서강대에 재학하다 유학길에 오른 그는 시카고대를 거쳐 예일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글로벌 방위산업체인 노스롭 그러먼 인포텍의 부회장과 제너럴 매니저로 활동하다 2008년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서 코그노산트를 창업했다. 이 회사는 미국 연방 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부 등에 보건 및 안전 솔루션을 제공한다.

강 대표는 2012년 ‘코그노산트재단’을 설립해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구성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으며, 여성을 위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사업가로서의 성공과 자선 활동을 인정받아 팜비치 애틀랜틱대가 주는 ‘2019 아메리칸 프리 엔터프라이즈 메달’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2012 STEM 여성 리더 100인’,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등에도 뽑혔다. [▶](#)



# 안동 병산서원

## 자연과 어울림이 빼어난 한국 서원 건축의 백미

서원은 향교와 더불어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이다. 임진왜란을 극복한 명재상으로 이름을 남긴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과 그의 셋째아들 수암(修巖) 류진(柳鎭, 1582~1635)을 배향한 안동 병산서원은 지난 2019년 7월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정읍 무성서원, 장성 필암서원, 노산 돈암서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갓 피어나려는 꽃봉오리 같은 화산을 등지고 있는 병산서원은 '한국 서원 건축의 백미(白眉)'로 꼽힌다. 산비탈에 가지런하게 세워진 건축물이 모래밭을 감고 흐르는 낙동강과 어울려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한다. 아늑하고 평화롭다. 공부하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서원의 정문인 복례문(復禮門)은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라는 논어의 '극기복례'(克己復禮)에서 따온 말이다. 솟을삼문 앞에 서면 시선이 만대루를 거쳐 입교당까지 연결된다. 축선을 이용한 장점 중 하나로 공간의 연속성과 흐름이 확연히 드러난다.

대문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만대루와 복례문 사이에 물길을 끌어 들여 만든 광영지(光影池)가 눈길을 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땅을 의미하는 네모진 연못 가운데,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섬'을 둔 '천원지방'(天圓地方) 형태의 연못이다.

### 숨 멎을 듯 아름다운 만대루

대문 앞으로는 2층 누마루인 만대루(晩對樓)가 압도하듯 서 있다.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 지은 만대루는 긴장된 수양 생활의 피로를 풀기 위한 휴식과 강학의 복합공간이다. 만대루의 아름다움은 건물의 위용보다는 자연스러움에 있다. 위와 아래층 모두 기둥만 있고 문과 창, 벽이 없이 목조 뼈대만 강하게 드러낸다. 만대루의 아래 기둥들은 목재를 다듬지 않고 그대로 썼기 때문에 휘어진 모습 그대로의 기둥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다. 주춧돌도 가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거칠고 투박하다. 본래 땅속에 있었던 돌 같은 느낌을 준다. 인공의 냄새를 전혀 풍기지 않는다. 건축물이 인공 구조물이라는 인상을 지우려 한 의도가 엿보이는, 우리나라 옛 건축의 '자연 닮기'다. 건축학도들이 우리 옛 건축을 공부하기



위해 가장 많이 병산서원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면 7칸, 측면 2칸의 우람한 건물인 만대루는 2층으로 올라가야 진면목을 느낀다. 누마루를 오르는 계단도 커다란 통나무를 도끼질로 서너 곳 잘라 내어 인상적이다. 2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너른 만대루에 오르는 순간, 가슴이 확 트인다. 벽과 문, 창이 없어 텅 비어 있는 느낌이다. 대신 8개 기둥으로 만들어진 7칸의 공간은 사시사철 변하는 7쪽 병풍을 보여준다. 병산의 푸른 절벽과 노송, 굽이치는 낙동강과 백사장이 한눈에 들어온다. 시선이 한참을 붙들렸고 차디찬 강바람이 정체된 정신을 깨운다.

유생들은 만대루에 앉아 시회를 열며 담소를 나누었고, 강물과 병산을 바라보면서 심신을 수양했을 것이다. 천장도 휘어진 통나무 대들보를 그대로 살려냈다. 수백 년 묵은 세월의 더께가 그대로 느껴진다. 자연과 하나 되려는 성리학자의 높은 안목과 미의식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만대루를 내려와 마당으로 들어서면 맞은편에 강당 건물인 입교당(立敎堂)이 자리한다. 1.8m의 높직한 기단 위에 놓여 있는 입교당의 마루에 앉으면 만대루를 통해 낙동강과 병산 풍경이 한눈에



2

들어온다. 스승과 제자 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소통의 공간인 입교당은 전형적인 5칸의 강당 구성으로 가장 크고 견실한 건물이다. 서원의 교육은 철저하게 자습 위주였다. 교수가 과제를 내주면 유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며 강의 때 교수진 앞에 불러나가 공개 구술시험을 봤다. 합격하면 다음 과제를 부여받지만 떨어지면 유급됐다.

병산서원은 입교당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배치했다. 동·서재의 규모로 보아 수용 인원은 최대 20명 정도에 불과했을 것으로 보인다. 입교당과 기숙사인 동재 사이를 돌아 들어가면 서에 선생과 수암의 위패가 모셔진 존덕사가 나타난다. 서원에서 가장 윗부분에 위치한 사당으로 들어가는 신문(神門)은 붉은 색칠을 하여 부정한 것의 접근을 막고 있다.

존덕사 왼쪽 아래에는 책을 찌는 목판을 보관하던 장판각(藏板閣)이, 오른쪽 아래에는 사당에 올릴 제수를 준비하던 전사청(典祀廳)이 들어서 있다. 담장 아래로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백일홍을 심었다. 조경은 단순한 나무 심기에 그치지 않고 최종적으로 건축을 완성한다는 우리 옛 건축의 일면을 보여준다.

하얀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진 서원 앞 강가로 나섰다. 낙동강에 발을 내린 산이 병산이고, 그 절벽 아래로 푸른 강물이 쉽 없이 흘러간다. 뒤돌아서서 자연과 조화된 병산서원의 미(美), 우리 옛 건축의 아름다움을 되새겨본다. **창**



3



4

1. 입교당에서 내려다본 만대루와 병산.
2. 화산 자락에 자리한 병산서원.
3. 벽과 문, 창이 없는 만대루.
4. 류성룡 선생의 위패를 모신 존덕사.

# ‘하와이 한국 민간 외교관’ 토니 리 관장 별세

30년 넘게 현지 한인사회 행사 주도... ‘동방의 빛’ 수상



‘하와이의 한국 민간 외교관’으로 불린 토니 리(한국명 정순영) 여사가 지난 1월 19일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84세.

1937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김구 선생을 보필하던 부모가 한국전쟁 중에 납북되면서 한순간에 고아가 돼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32살 나이인 1969년 친구와 하와이에 놀러 갔다가 아예 눌러앉았고, ‘한국문화 홍보대사’를 자칭하면서 오늘의 하와이 한류 열기의 기반을 닦았다고 한다.

1989년 라나킬라 노인센터에서 한국 무용을 가르치면서 주 정부와 호놀룰루시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국문화 홍보대사’로 눈도장을 찍었다.

고인은 주 정부가 운영하는 이민 선조들의 생활상을 재현한 민속촌인 ‘와이파후 플랜테이션 빌리지’의 한국관 관장을 맡아 운영하면서 주류사회에 한국 알리기에 앞장섰다.

와이파후 플랜테이션 빌리지는 하와이, 중국, 일본, 필리핀, 한국, 오키나와,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칸 등 8개 소수민족의 하와이 초기 이민자들의 삶을 재현해 놓은 민속 박물관이다.

한국관에서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사탕 수수대를 자르며 힘든 삶을 보냈던 한인 이민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현지 가톨릭이 운영하는 다민족 시니어들을 위한 비영리단체 ‘라나킬라 한인문화클럽’ 회장, 주 정부가 운영하는 장애학생들의 재활을 돕는 비영리단체 ‘할레마누 문화클럽’ 강사로도 활동했다. 한국 무용, 음식 등을 직접 하면서 소수민족 어르신과 학생들에게 문화강좌를 통해 한국문화를 전파했다.

하와이주와 호놀룰루시 정부 측이 요청하는 한국문화 관련 행사는 도맡아 진행하다시피 했다.

자비를 들여 마련한 한국 전통 한복 컬렉션도 궁중 패션쇼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다양했다. 리 도나휴 경찰국장, 문대양 전 대법원장, 앤 고바야시 시의원, 도나 모카도 김 주 상원의원, 메이지 히로노 연방의원 등 하와이 현지 유명 정치인 중 고인의 한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하와이 한인사회는 그런 고인의 열정을 높이 사 ‘하와이 한국 민간 외교관’이라는 칭호를 붙여줬다.

고인은 2015년 한미재단 하와이가 주최한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문화를 주류사회에 알린 공로로 ‘동방의 빛’(Light of the Oriental Award) 상을 받았다.

미주 한인의 날은 1903년 대한제국 젊은이 102명이 미국 증기선 게일릭호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도착해 한인 이민사가 시작된 날을 기념해 지정됐다.



‘하와이의 한국 민간 외교관’으로 불린 토니 리 여사(위). 지난 2018년 와이파후 플랜테이션 빌리지에서 열린 ‘한국관 설 잔치’.

## 한국계 ‘마스터 소믈리에’ 더글러스 김

라스베이거스 호텔 20여 곳서 소믈리에 50명 · 와인 35만병 관리

**미**국 시카고 출신의 한국계 ‘마스터 소믈리에’ 더글러스 김이 미국 대형 카지노 리조트 운영사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의 와인 디렉터로 임명됐다.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김씨는 MGM이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 운영하는 13개 리조트와 호텔, 인근 지역 8개 호텔의 소믈리에(와인 감별사) 약 50명, 이곳에서 소비되는 약 35만 병의 와인을 총괄 관리한다.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와인 디렉터로 임명된 재미동포 ‘마스터 소믈리에’ 더글러스 김(좌). 와인동굴에 저장된 와인.

김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2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 시카고 북서 교외 도시 링컨우드에 살면서 나일스 웨스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선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할머니가 음식 만들기를 즐기셨고 그 영향으로 나와 두 누이는 어려서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다. 방과 후 간식 만들기가 취미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셰프가 될 꿈을 갖고 2004년 뉴욕의 유명 요리학교 ‘컬리너리 인스티튜트 오브 아메리카’(CIA)에 들어갔다. 그러나 3주 과정의 와인 관련 필수 과목이 그의 인생 궤도를 바꿔 놓았다.

그는 “와인은 내 백그라운드인 한국 문화에서 별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주 또는 맥주를 마셨다”며 “그러나 수업을 들으며 와인 연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요리학교 졸업 후 라스베이거스 네바다대학(UNLV)에 진학, 서비스 경영학을 전공하고 고급 레스토랑 ‘찰리’에서 본격적인 실무 경험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부모님이 시카고 유명 셰프 찰리 트로터(1959~2013)의 레스토랑 인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한 덕분에 트로터의 도움을 받아 전문 레스토랑에서 탄탄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선타임스는 김씨가 북미와 중남미를 통틀어 200명도 되지 않는 마스터 소믈리에 중 한 명이라고 전했다.

그는 10년에 걸쳐 시험을 치르고 과정을 밟아 2018년 이 자격을 취득했다.

MGM의 식음료 전략 담당 선임 부사장 도미니크 버틀론은 김씨에 대해 “그는 경력 내내 일류 전문가 자리를 지켜왔다. 고객 중심 접근 방식, 고객에게 기억에 남을 순간을 선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그의 성공 비결인 것 같다”며 “MGM이 그를 갖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매일 와인 공급업체 및 협력사 직원들을 만나고 엄청난 양의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 소믈리에들의 요구 사항도 듣고 지원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며 “화려하지만 한 직업은 아니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가장 기꺼이 하는 업무는 레스토랑에 새로 들일 와인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좋은 와인 마시는 시간을 즐기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와인은 없다”면서 “집에서는 버번위스키에 얼음을 띄워 마시거나 맥주를 마신다”고 덧붙였다. **창**

## 일본 쓰루하시역 인근 상점 연합 '오사카코리아타운' 출범

일본 간사이(關西) 지방 재일동포 최대 집거지인 오사카 이쿠노(生野)구 JR쓰루하시(鶴橋)역 인근 코리아타운의 상점 연합인 '오사카코리아타운'이 지난 1월 출범했다.

'이카이노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주말에는 일본 전역에서 8천~1만여 명의 한류 팬들이 몰려든다. 대부분 한국 화장품·한류스타 상품·한국 식품 등을 구입하고, 한식당에 들린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었다.

코리아타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국 관광길이 막힌 한류 팬들이 일본 내에서 한국 분위기를 맛보기 위해 주말이나 연휴에 몰려들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의 조사에 의하



한국문화 체험장 된 일본 오사카 코리아타운.

면 방문객의 80%가 10~20대 일본 여성들이다.

홍성익(65) 오사카코리아타운 초대 회장은 "3개 상점가 통합은 20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각자 특색이 있어서 하나로 뭉치기 힘들었다"며 "최근 한국 아이돌인 BTS와 트와이스에 의한 '3차 한류 붐'으로 한류 팬 관광객을 상대로 한 영업이 활성화하면서 통합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재일 3세인 홍 이사장은 "우선 '오사카코리아타운'을 알리는 이벤트와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며 "재일동포 역사를 알리는 '코리아타운 자료관'을 세워 재일 차세대에 정체성을 심어주는 한편, 지역민에게는 다문화 공생의 상징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이집트 한인들, 코로나19 중증감염 동포 위해 자발적 모금

이집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노인을 위해 자발적인 모금 활동에 나섰다.

이집트 한인회 등에 따르면 최근 현지 한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권 모(75) 씨를 위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모금은 카이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다른 동포가 지난 1월 16일 SNS 한인 단체방에 권씨의 감염 소식과 함께 그가 만든 참기름을 사달라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또 이 여성은 설을 앞두고 떡국용 떡을 기부물품으로 내놓고 현지 한인들에게 구매를 요청했다.

평소 당뇨를 앓아온 권씨는 심각한 다리 통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그는 한쪽 다리에 괴사가 진행되고 있어 큰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하루 약 2만 이집트 파운드(약 15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데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형편이 좋지 않아 병원비를 대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상황을 접한 현지 한인들과 현지에 살다가 귀국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전달, 일단 지금까지의 병원비를 정산할 정도의 돈이 모였다.

한인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를 고려해 일단 모인 성금으로 권씨를 퇴원시킨 뒤,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재이집트 한인회 관계자는 "감사하게도 현지 한인들은 물론 이집트에 살다가 귀국하신 분들까지 성금을 보내주셨다"며 "무사히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완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 캐나다 동포 소설 '붉은궁전' 포브스 '2022년 기대되는 책' 선정

캐나다 동포 허주는 작가의 소설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2022년 가장 기대되는 책'에 올랐다.

포브스 사이트(www.forbes.com)와 허 작가 소셜미디어(SNS)에 따르면 포브스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독자도 기대할 만한 올해의 소설을 4권 선정하면서 이 중 하나로 허주은(영문명 준 허) 씨의 조선 시대 궁중 미스터리 소설 '붉은궁전'을 소개했다. 지난 1월 25일 미국 뉴욕의 맥밀런 출판사가 발간한 '붉은궁전'은 미국 청소년도서관협회 선정도서로 뽑혔고 미국서적상협회(ABA)의 인디 부문 베스트셀러에도 올랐다.

소설은 조선 시대 영조 집권 시기인 1758년 궁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7살의 여주인공이 의녀(醫女)가 돼 입궐하면서 궁중에



조선 시대 미스터리 소설 '붉은궁전'을 펴낸 허주는 작가.

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다. 당시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과 비운의 인물인 사도세자 부인이자 정조의 모친인 혜경궁 홍씨 등 역사적 사건과 인물이 등장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7살 때 가족 이민으로 캐나다로 건너간 그는 다시 귀국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캐나다로 돌아간 1.5세대. 토론토대학에서 역사와 문학을 전공했고 토론토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2000년 여성 진로 및 형사를 담당했던 다모에 관한 이야기인 '뼈들의 침묵'을 펴내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중국

에 조공으로 바쳐지던 공녀의 이야기를 담은 '도둑맞은 소녀들의 숲'을 발간하는 등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쓰기에 집중하고 있다.

## 재미동포 영 김 의원, 이라크전 한인 전사자 기리는 '김장호우체국' 추진

재미동포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우체국 개명(改名)을 통해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한인 전사자를 기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 39지구) 홈페이지(youngkim.house.gov)에 따르면 영김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플라센티아 우체국의 이름을 '장호 김'(Jang Ho Kim)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1990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한 김장호는 2006년 11월 1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자동차를 타고 순찰하다가 이라크 저항세력이 설치한 폭발물이 터져 사망했다.



한인 전사자 이름을 딴 우체국 개명안 발의 소식을 전한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 홈페이지.

플러턴대 1학년에 다니다 2005년 입대한 그는 전사 당시 일병이었고, 20살의 외동아들이었다. 리버사이드 국립묘지에 안장된 그는 군사 작전으로 사망한 군인에게 주는 퍼플하트 훈장과 브론즈 스타 메달(청동성 훈장) 등을 받았다.

영 김 의원은 "봉사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일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며 "테러와의 전쟁에서 너무 일찍 목숨을 잃은 희생과 용맹을 기리고, 미래 세대들이 그의 이름과 이야

기를 기억하도록 돕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돼 '장호 김 우체국'이 생기면 미국에는 한인 이름을 딴 공공건물이나 시설이 모두 5개로 늘어난다. [장]



**재독한인총연합회, 취약계층 동포에 '행복상자' 전달**

재독한인총연합회(재독총연·회장 박선유)는 취약계층 독일 동포 가정에 '행복 상자'를 전달했다. 행복 상자에는 쌀 1포, 떡국 떡, 진간장, 된장, 고추장, 옛날국수 소면 등 한국산 생필품과 마스크 50장이 들어 있다. 이 단체는 40여 개 한인회를 통해 독거노인, 기저질환자, 고령층 저소득자 등 이민 1세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이민 2세대 등 취약계층 150여 세대를 선정했다. 재독총연은 10여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 예산은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금과 동포들의 정성, 자체 재정 등으로 충당했다.



**브라질 한인타운에 주말장터 개설... 한국 음식 판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인타운에 주말장터가 개설됐다. '한인 이민의 날'인 2월 12일(현지시간)에 맞춰 열린 개막식에 참석한 황인상 총영사는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말장터가 만들어지면서 한인타운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주말장터에선 현지인들에게 한국 음식을 맛보고 문화 콘텐츠를 체험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한편 상파울루주 정부와 의회는 한인 이민 59주년을 축하하는 서한을 총영사관 앞으로 보냈다.

**제15회 민초해외동포 문학상 공모... 장르 불문 5월말까지 접수**

민초 해외문학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유식)는 3월부터 5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작가들을 대상으로 '제15회 민초 해외문학상'을 공모한다. 이 상은 캐나다 캘거리에 거주하는 민초 이유식 시인이 사업으로 번 사재를 털어 2007년 제정했다. 시와 시조, 수필, 소설 등 장르와 관계없이 발표되지 않은 최신작을 응모할 수 있다. 올해는 해외에서 출생해 성장한 이민 2세를 우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도 참가할 수 있다. 문의는 이메일(ysspoet7788@hanmail.net)로 할 수 있지만, 응모작은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마다가스카르 한인회, 수재민에 긴급 구호품 전달**

마다가스카르의 한인회(회장 원현희)가 열대폭풍 아나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수도 안타나나리보의 암보히드라트리모 지역 모론다바 공립초등학교를 방문해 1천만 아리아리(361만원) 상당의 쌀, 비누, 마스크 등을 수재민 400가정에 전달했다. 원 회장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마다가스카르 사람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방문했다면서, 앞으로도 한인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기증식에 참석한 마로하오 티에리 지역본부 재난관리실장은 한인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재일한국인청년들, 정체성·네트워크 다지는 '동계 잼버리' 개최**

재일한국학생회는 지난 2월 24부터 26일까지 아이치(愛知)현 다하라(田原)시에서 '2022 재일한국학생잼버리'를 개최했다. 재일동포 대학생과 일본 유학 중인 한국인 대학생 300여 명은 일본 주류 사회에서 활약하는 선배를 초청해 '재일동포로 어떻게 살 것인가', '모국과 한국인 정체성', '재일동포 역사' 등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토론에 참여했다. 또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며 우의를 다졌다. 이 행사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리는 정자 건립**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치치) 한인회는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시내 공원에 한국형 정자를 세운다. 정자는 홀스웰퀴리 공원 내 '송파-치치 자매도시 정원'에 조성된다. 한인회는 정원에 돌하르방과 석등, 장승 등 한국 상징물만 있고 심터가 없어 6각형의 정자를 세우기로 했다. 오는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기념일 이전에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정자에는 참전용사의 명패도 부착된다. 7만 달러의 공사비용 조성은 한인회, 치치 시청, 송파구청,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등이 분담하기로 했다.

## 태국 한국문화원서 ‘한복 패션쇼’ ‘곱고 아름답게’ 빛난 한복

태국 방콕의 한국문화원에서는 2월 14일 해외문화홍보원(KOCIS)·문화원 공동 주최로 한복 패션쇼가 열렸다.

공교롭게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 ‘한복 논란’ 이후 열린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4월29일까지 문화원에서 열리는 ‘드라마 속 한복 체험전’ 개막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태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한복을 함께 보고 경험함으로써 양국 간 문화 교류를 더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애초 방콕 시내 코리아타운 내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비로 문화원 실내로 옮겨 진행됐다.

가야금과 전통춤 공연으로 문을 연 행사는 양국 참석자들이 10여 벌의 한복을 직접 입고 무대 위를 걸으면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태국 언론 및 관객 등 30여명도 참석자들이 개성 있는 한복 차림으로 무대를 걷고 인사하자 박수와 환호로 답했다. 관객들 사이에서 “예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최영석 태국 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은 짙은 청색의 소매가 없는 캐자를 입고 나왔다. 최 감독의 제자이자 도쿄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파니팍 원파타나깃은 파스텔컬러의 색동저고리를 입고 발랄한 매력을 뽐냈다. 두 사람은 한복 차림으로 무대 위에서 멋진 태권도 동작을 선보여 환호를 끌어냈다.

한국전 참전용사의 후손이자 2005년 미

방콕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국 패션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복을 입고 태권도 동작을 취한 최영석 태국 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

스 타이랜드 유니버스 우승자인 차난편 롯짠은 궁중 평상복인 당의를 입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현지에서 인기가 많은 DJ 부끄도 한껏 멋을 부린 한복 차림으로 무대를 누비며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

차난편 롯짠은 “한복 입기가 전혀 어렵지 않았다”며 “한복은 입어본 전통의상 중 가장 입기 편한 의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어보니 천과 바느질 기법에 따라 다양한 한복이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이 좋아하는 유형 또는 색깔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에 맞춘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원하는 색깔로 상·하의를 구성할 수 있는 등이 한복의 장점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태국 태권도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최영

석 감독은 “한복을 입으니 한국의 얼과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최근 태국으로 귀화한 최 감독은 “앞으로 여러 행사에 참여할 때 자주 한복을 입어 태국에 한국의 한복을 알리고 소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승현 주태국 대사는 “우리 고유한 문화로서의 한복, 한국의 문화, 한국의 전통을 주재국에 소개하고 그걸 통해 양국 국민들이 더 가까워질 계기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사는 이날 태국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데 뜻깊은 역할을 한 태국 측 참석자 4명을 한국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창**

## 재외동포재단 · 인사혁신처, 해외 한인 인재 영입 추진

해외의 한인 인재를 영입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길이 열렸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과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2월 24일 서울 양재동 외교타운에서 '해외 동포 인재 발굴과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정부 주요 직위 인선 또는 공직 직무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활용에서 해외 한인 인재의 발굴과 추천을 하는 동시에 성공적인 활용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 주요 사업과 사례를 대표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홍보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하는 데 뜻을 모았다.

체결식에는 재단의 김성곤 이사장과 정광일 사업 이사, 혁신처의 김우호 처장과 신병대 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해외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등용해 모국과 거주국 간 교류와 상생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 전 인류를 이롭게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곤 이사장(오른쪽)과 김우호 처장이 '해외동포 인재 발굴과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1998년부터 세계 한인 차세대대회를 개최(누적 참가자 1천500여 명)하고 있으며, 지난해 23차 대회에서는 인사혁신처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 2023년 세계한상대회 미국서 열린다... 첫 해외 개최

내년 세계한상대회가 지난 2002년 첫 대회 개최 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열린다.

2023년 열릴 '제21차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신청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며,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황병구) 산하 뉴욕, 델러스, 애틀랜타, 오렌지 카운티 총 4개 지역 상공회의소가 유치를 신청했다. 재단은 지난 2월 3일부터 11일까지 신청 도시 4곳을 방문해 실사를 진행했다.

재단은 3월 3일 1차 내부 평가위원회를 열고, 4개 후보지 중 결선 후보지로 델러스와 오렌지카운티를 선정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세계한상대회 첫 해외 개최인 만큼 해당 도시



지난 2021년 10월 서울서 열린 제19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식.

의 컨벤션센터, 호텔 등 시설 인프라, 동포사회와 현지 주류사회의 협력 가능성, 신청단체의 대회 개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과는 4월 6~7일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과 연계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제40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정광일 재단 사업이사는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위해 보여준 미주 동포사회의 뜨거운 열정에 감사하다"며 "해외 개최가 동포사회와 모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단은 2002년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전 세계 한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했다.

## ‘제2회 초청 장학생 졸업논문 발표회’ 개최

재외동포재단은 2월 25일 재외동포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와 학업 성과물을 공유하기 위한 ‘제2회 초청 장학생 졸업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졸업생 10명(석사 8명, 박사 2명)을 비롯해 중국,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출신 재학생 80여 명, 대학교수 6명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장학생들은 졸업 논문을 소개하고 진로 계획과 졸업 소감 등을 발표했다. 이어 멘토 선배들이 졸업생에게 격려와 조언 등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재외동포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2회 초청장학생 졸업논문 발표회’.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논문 준비 과정과 학업 생활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동포사회의 미래인 이들이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단이 설립된 1997년부터 매년 시행된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장학생 1천500여 명을 배출했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

###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 내 이름은 로빈

로빈 하 / 길벗스쿨

미국에서 출간된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교사와 도서관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내 이름은 로빈: 열네 살, 미국으로 떠난 소녀의 성장 일기’는 저자 로빈이 미국에 이민을 가면서 겪은 일들을 만화 형식으로 보여 준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견뎌 내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이 작품은 한국계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묘사해 주인공이 느끼는 외로움과 설렘, 두려움, 분노, 당황, 기쁨 등의 감정이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또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 인종 차별, 미혼모 가정과 성역할에 대한 시선 등 민감한 사회적 문제들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우정과 가족애, 작품 전반에 깔린 강인한 한국의 여성상은 한국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이 책은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야기이자, 엄마와 딸 사이의 변하지 않는 유대에 대한 이야기이다.

#### 다문화 박사의 ‘진짜’ 다양성 이야기

조형숙 / 산지니

다문화·이중언어 교육 전공자인 조형숙 서원대 교수가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 사회의 준비 방법 등을 제안한 에세이를 출간했다.



조 교수는 ‘심심해’가 아니라 ‘외로워’라고 말하는 7살 자녀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주류 집단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 그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논의하고,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분석한다.

미국 유학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적 차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냈다. 학교 등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다문화 교육의 현실을 비롯해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주민과 다문화가정 등을 다루는 모습에 대한 개선점을 짚었다.



## 한국국제협력단 초청 연수, 과테말라 '인재 산실'로 자리매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운영하는 개도국 공무원 등 초청 연수가 중미 과테말라의 '인재 산실'로 자리를 잡고 있다.

코이카에 따르면 기에르모 카스티요 과테말라 부통령, 레슬리 사마야아 보건부 차관, 파누엘 가르시아 과학수사청 청장, 로니 로페즈 헌법재판관, 에드윈 아르디아노 경찰청 차장 등이 코이카 초청으로 한국에 와 연수를 받은 인물이다.



코이카 석·박사 연수생 출신인 기에르모 카스티요 과테말라 부통령.

1991년 연수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천10명의 연수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과테말라 정부 각 부처 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실천하고 있다.

연수생들은 귀국 후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하다 연수생 모임 등으로 매년 모여 지식 확산 세미나, 기부 활동,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이들은 한국의 연수 경험과 지식을 자국에 전파하고, 한국을 통해 배운 선진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등 '친한파'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코이카 과테말라 사무소와 현지 국가기획청(SEGEPLAN)이 온라인에서 함께 마련한 연수 과정 설명회에는 공무원 55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코이카는 이들 공무원에게 올해 추진할 장기 석·박사 17개 학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학위 과정과 원서 작성, 지원 방법 등을 안내했다. 올해 연수는 8월 학기부터 운영하며, 14개월부터 최장 3년까지 진행한다.

## 세종학당재단,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협업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은 해외문화원과 협업해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확대에 나선다.

재단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누리세종학당'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해외문화홍보원이 발간하는 월간지 'KOREA'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삼겹살, 닭갈비, 파전 등 한식

을 알리는 웹툰을 비롯해 한국 문화 학습 콘텐츠를 외국인에게 소개한다.

재단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문화 확산을 촉진하려고 구성된 ‘해외진출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해외문화홍보원과 함께 하면서 협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외문화홍보원 월간지 'KOREA'.

## 한국국제교류재단, 베트남에 한국학 석사과정 첫 개설

올해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베트남에서 한국학 석사 과정이 처음으로 개설된다.

호찌민국립대 인문사회과학대는 올해 9월 한국학 석사 과정을 개설해 한국학부에서 운영에 들어간다. 호찌민국립대 인문사회과학대 소속 한국학부는 베트남 최초의 한국학 전공 학부다. 한국학부는 지난 1994년 9월 한국학 전공 과정으로 개설된 뒤 2015년 학부로 승격됐다.

그동안 호찌민총영사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교육원, 한국문화원 등 한국 정부기관을 비롯해 삼성, LG, 롯데, 포스코 등 많은 한국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내 한국 관련 분야 교육 및 연구를 선도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한국학부는 1회 졸업생이자 서울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응우옌 티 프엉 마이(Nguyen Thi Phuong Mai) 교수가 이끌고 있다.

한국학부는 석사과정 개설을 위해 현지 수요 조사 및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 한국학 석사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앞으로 베트남에서 한국학 연구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뤄지는 동시에 학술 자료 및 논문이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양국 관계 증진과 베트남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력을 다수 배출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창**



한국학부의 응우옌 티 프엉 마이(왼쪽)교수와 강명일 호찌민 총영사(가운데), 응오 티 프엉 란 인문사회과학대 총장.

# 재외동포 청년들에게 전하는 소소한 글



김경 홍익대학교 조교수  
(2011년도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얼마 전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재외동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 장학생 졸업논문 발표회’가 열렸다. 재외동포 청년들이 학업 성과물을 공유하고 교수, 선후배들과 소통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발표회에서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 논문 작성 등 학업에 대한 고민과 취업, 재외동포 청년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등 다양한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있자니 20대의 고민의 겉은 대체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년 100여 명의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 세대의 생각과 고뇌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학술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줄 수 있었으나, 선택의 기로에 선 학생들에게 진로를 제시하거나 힘내라는 무책임한 말만 건넬 수는 없었다. 어떤 말을 전해야 할까? 나 역시 인생을 논하기에는 미숙하기 그지없으니 난감한 일이었다.

이들의 다양한 고민 대부분은 앞으로 갈 길에 대한 미지(未知)와 무지(無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리는 종종 출발부터 미지의 길에 놓이게 된다. 특히 재외동포로 살아온 우리에게 주어진 터전이 좁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으며, 선인들이 터준 길이 아닌 스스로 개척하고 터득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고민의 초점은 “어떤 내가 될 것인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라는 존재적, 소유적 질문보다는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으며, 과연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행위적 질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집요하게 던지고 끊임없이 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작은 것들, 작은 변화에 주목하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파편화된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작은 것들, 즉 사소한 것들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 어쩌면 나와 큰 상관없는 주변 사물, 사람에 모두 관심이 없거나 무심하다. 그러나 작은 것들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며 작은 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 취향이 나노 단위로 세분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가방 트렌드를 보면 각종 간편결제 수단의 활성화로 소지품이 줄어들고, 가방 본래의 수납과 실용성이 배제되면서 점점 작아지고 날렵해진 새들백, 벨트백 등 마이크로백들이 빅백을 대체했다. 지폐의 역할 변화가 결국 패션에 새로운 돌풍을 몰고 온 것이다. 따라서 변화에 민감할수록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쉽다.

다음으로 주체적 능력을 키우기 바란다. 그러려면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인터넷 검색 엔진에는 원하는 정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지혜를 얻기는 어렵다. 관음의 시대에 끊임없이 정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독서를 통해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타인과의 경험을 통해 사회를 통찰할 수 있다.

아울러 실천을 해볼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한다. 경험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회를 확대해 보기 바란다.

끝으로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느꼈으면 한다. 물론 시대는 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주기도 한다. 시대의 흠 한 점이 보통의 우리에게 큰 산이 되기도 하니까, 내 삶에도 벅차게 느껴질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나라와 고국 간의 오해와 불신을 불식하고 이해와 소통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장 선두에 설 수 있는 사람만큼 적극적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문득 천양희 작가님의 시 〈지나간다〉 중 한 구절이 떠오른다. “사소한 것들이 그래도 세상을 바꾼다고, 바람이 불면서 지나간다.” 모두의 가룩한 수고가 빛을 발하길 기원한다. 



## 제기 스테디코리안 해외통신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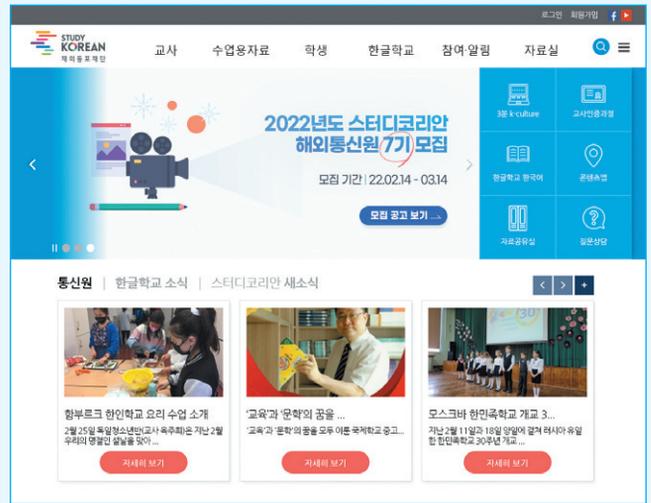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글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사이트 '스테디코리안'의 해외통신원을 모집한다.

선발된 통신원은 스테디코리안 사이트에 거주 지역(국가) 한글 학교 및 교육분야 관련 기사 또는 칼럼 형식의 취재물(사진·동영상·인터뷰 등)을 올려야 한다. 월 최대 2건이며, 승인된 원고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활동 기간은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12개월이며 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3월 14일까지 홈페이지(<http://study.korean.net/>)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력서·자기소개서·자유주제 칼럼 등과 함께 이메일(studykorean@okf.or.kr)로 제출하면 된다.

3월 28일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 및 공지한다. 문의는 이메일(studykorean@okf.or.kr) 또는 전화(☎ +82-64-786-0269)로 하면 된다.



## 2022년도 재외동포재단

### ‘국내동포 관련 단체 활동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

재외동포재단이 국내 재외동포 관련 시민단체를 지원하기에 앞서 사업 신청을 받는다.

3월 21일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http://www.korean.net)) 홈페이지에서 단체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재외동포 관련 교류와 권익 신장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국내 거주 중국 동포와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동포 간 화합 및 교류 활성화 사업, 국내 거주 차세대 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이다.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단체 자조 능력으로 시행 가능

한 사업(정기·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단순 친목 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국내 소재 재외동포 연구단체와 언론단체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중순쯤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사업 관련 문의는 이메일([sw21@okf.or.kr](mailto:sw21@okf.or.kr)) 또는 전화(☎ 02-3415-0113)로 하면 된다.

#### 2022년 2월의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 김성곤 이사장

- 2월 10일: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강의
- 2월 23일: YTN 이브닝뉴스 인터뷰
- 2월 24일: 재단-인사혁신처 MOU 체결
- 2월 25일: 초청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및 졸업논문 발표회 참석



#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